

<총장 칼럼>

종교개혁과 교회의 거룩성



권호덕 총장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기념일(10월 31일)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임을 고민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할 일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명칭의 의미와 속성을 바로 이해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교회의 통일성(하나됨), 보편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라는 말이다. 이런 속성을 가진 교회는 인간이 생존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침투해 들어가서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통치 아래 있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이 보편성 때문에 교회는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려할 대상은 교회의 거룩성이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가리켜 이미 천국에 있는 존재로 본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하늘에 앉힌바가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교회는 신분상 거룩하다는 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다. 스파이크만의 지적대로, “믿음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또한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돌리고 있다. 그 분의 의로움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다” 마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여 칭의함을 받으면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가리켜 ‘성결’이라고 부른다. 종교개혁운동은 교회의 본질회복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상의 교회가 아직 덜 성숙하고 미완성적이라는 것이다. 교회사는 교회가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의 지탄(指彈)의 대상된 사실을 자주 보고한다. 미신에 빠진 중세교회를 보라.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제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을 칼빈은 고발하고 있다. 또 교인들 사이에도 시기 질투가 있고 증오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세속화되는가 하면 중세에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들을 보더라도 지상 교회의 미숙함

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말이다.

교회의 거룩성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신분상으로 거룩한 지상 교회가 계속 거룩해져야 함을 가르친다.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미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며 동시에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방식으로 거룩해지려고 한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지정한 방식대로 해야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 교회가 거룩해 짐을 가르친다. 은혜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말씀과 성례이다. 성례는 다시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회는 들려진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여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이다(요 15:3; 엡 5:26).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세례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물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데 세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셋째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 하게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식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때 우리는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意識이 모르게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대 교회의 가치관이 타락하여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수많은 현대교회는 물량주의에 빠져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소금맛을 잃은 이런 교회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교인들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다가는 한국교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어찌면 이런 위기때에 교회의 그 본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계소식>

['저출산·고령화' 극복하는 교회들]

⑨ '청년사역 올인' 용인 아름다운우리교회



지난 12일 아름다운우리교회 청년들이 이탈리아 선교 때 공연할 스킷 드라마를 연습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 죽전로 “아름다운우리교회”(이동훈 목사)는 2007년 청년 18명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동훈(42) 목사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 청빙도 마다하고 개척 직후부터 청년 사역에 올인했다. 그 결과 청년 300명을 포함해 재적 성도 370여명인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 목사는 “청년들에게 헌신만 강요하지 않고 그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청년과 선교 중심의 목회에 집중하자 다음 세대가 신앙 열정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아름다운우리교회 예배당에 들어서자 10명의 청년들이 공연 연습에 한창이었다. “여기서 마귀가 사람을 확 넘어뜨려야 돼. 더 강하게 휘몰아치듯이!” 이탈리아 선교를 앞둔 아름다운우리교회 스킷 드라마팀 중간 리허설 현장이다. ‘창조-죄와 타락-구원’으로 이어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온몸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스킷 드라마의 특성상 전체 길이가 6분가량에 불과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에서는 선교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다.

5년째 드라마팀장을 맡고 있는 송민아(34·여)씨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끝 모를 영적 침체기까지 체험했다가 이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2007년 첫 번째 필리핀 선교 때 말 그대로 크게 깨졌다”며 “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고 가장 바닥에 있던 신앙이

최고 우선순위에 올라오면서 삶 자체가 변했다”고 고백했다.

이 교회 개척 멤버인 서연정(34·여)씨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 가슴부터 뜨거워진다”며 “신앙적 체험의 물꼬가 트이기만 한다면 청년 크리스천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로 선교하는 교회=‘코리아 워십 페스티벌’로 불리는 선교 예배는 아름다운우리교회 사역의 핵심이다. 필리핀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년에 4~5차례 선교를 간다. 어느 지역을 가든 항공료는 자비량이다. 현지 체류비도 절반은 스스로 책임진다. 나머지 절반은 바자나 경매행사 등을 통해 마련된 수익으로 지원한다. 일반적인 단기선교와 달리 모든 일정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예배를 알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보통 1주일 선교 기간에 지역이 다른 세 곳에서 세 번의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린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에는 찬양과 설교를 비롯해 워십, 스킷 드라마, 샌드 아트, 난타 등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방식의 무대가 열린다. 게릴라 콘서트처럼 펼쳐지는 예배에는 많게는 700~800명이 운집한다.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현지 교회로 연결한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아름다운우리교회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사역의 중심이 선교에 있다 보니 교회의 일상은 연중 선교 준비와 선교 출발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된다. 이날도 21일 출발하는 이탈리아 선교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팀별 준비 모임이 한창이었다.

임혜일(35) 전도사는 “삶의 희열을 망각하고 웅크린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현실”이라며 “선교를 준비하며 나누는 삶과 신앙, 선교 현장에서 쏟는 열심과 그곳에서 발견하는 체험들을 통해 희열을 느끼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선교 준비는 우리 청년들에게 호흡과도 같다”며 선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주변에서 청년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우려 섞인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통해 청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그 어떤 열매보다 크고 소중한 겁니다.”

용인=글·사진 최기영 기자

(국민일보) ky710@kmib.co.kr



대제사장 위임식

임창일 교수(구약학, Ph.D.)

1. 개요

본장은 모세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예식을 기록한다. 먼저 제사장의 의복과 관유와 제물을 준비하고 회중을 회집한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겨 의복을 입힌 후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로 위임식을 진행한다. 그 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무를 언급한다.

2. 위임식을 행하는 권위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거행했다(4절). 모세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의 중보자로서 위임식을 거행한 것이다. 위임식은 백성들이 모세를 추대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추진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3.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2-4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끌고, 제사장의 복장(출 28장)과 관유(출 30:22-33)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하여 회막 문으로 나아갔다. 온 회중을 회막 문으로 모아 공개행사로 진행했다. 첫째, 모든 백성을 위하여 봉사할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는 위임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는 엄숙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셋째, 백성들이 제사장과 그 직무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위임식에서 첫째로 한 일(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 물로 씻겼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그들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영적 의식이기 때문이다(히 9:13-14; 10:22).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시 24:4).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죄악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예표한다(벧전 2:9-10; 계 1:5-6). 이것은 회막 뜰 물두멍에서 행했다. 처음엔 제사장의 온 몸을 씻었지만, 후에는 손과 발만 씻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었다(요 13:10).

5. 제사장의 성의(聖衣)

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출 28:1-39).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우림과 둠뿔을 넣은 흉패를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금패를 붙였다(출 28:36-37).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한다.

6. 제사장의 겉옷(출 28:31)

겉옷은 속옷을 입은 후에 걸치는 긴 옷이다. 겉옷은 흔히 직분과 권위를 상징한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선지자 직분을 계승했다(왕하 2:13-14). 겉옷은 청색이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에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예표한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히 7:24; 롬 8:34). 겉옷의 밑단 가장자리엔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았다. 금방울 소리는 복음을 예표하고, 석류 하나에 금방울 하나를 달았던 것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영적 열매가 맺힐 것을 의미한다.

7. 에봇(7절; 출 28:6-14)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 맨 위에 앞뒤로 늘어지도록 걸치는 옷이다. 에봇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세마포로 짜고, 금빛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대표적 복장이고, 이것은 죄를 가려준다는 의미의 옷이다. 구약에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에봇을 걸쳐야 했다(삼상 2:28; 14:3; 21:9; 22:18; 23:6; 30:7). 그러나 신약에선 누구든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히 4:14-16).



(출처: 파이니아 선교회,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

8. 흉패(8절; 출 28:15-30)

흉패는 제사장의 가슴에 단다. 대제사장은 겹옷과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큰 패를 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다. 흉패는 에봇 짜는 법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다.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짜서 네모 반듯하게 했다. 거기에 열두 보석을 달고, 열두 보석에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대제사장은 어깨에 큰 호마노 보석 두 개를 좌우에 달고(출 28:12), 가슴에 흉패의 열두 보석을 달았다(출 28:29). 어깨는 능력을,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할 것을 예표한다. 열두 보석은 대부분 그 출처와 산지를 알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인종과 계급이 다를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똑같이 귀하고 값진 보배란 사실이다(사 43:4).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듯이(고후 4:7),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히 2:7).

9. 우림과 둠뫼(8절; 출 28:30)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뫼는 “완전하다”란 뜻이다. 확실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빛남과 완전함이란 의미의 판결도구이다. 우림과 둠뫼의 예표적 의미는 이것이다. 첫째, 공명하고 가장 완전한 판결을 의미한다. 둘째, 아무도 그의 판결을 부결시킬 수 없는 판결을 의미한다.

10. 대제사장의 기름부음의 의미(10-12절)

모세는 성막 안 성물(聖物)들에 기름부었고, 동시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모세가 사용한 관유는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유로 제조했다(출 30:22-25).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기름부음을 예표한다(눅 4:18-21; 행 10:38; 히 1:9). 구약의 기름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러 재료를 섞은 향 기름은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하나 됨을 뜻한다(고전 12:4-13; 엡 4:3).

11. 위임식의 세 가지 제사(14-29절)

(1) 속죄제를 드렸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속죄제를 드렸고, 그 제물은 수송아지였다. 화목제 하는 직책을 맡은 자들은 먼저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후 5:18).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마 15:14).

(2) 번제를 드렸다. 번제란 완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데, 그 제물은 수양이었다. 위임식의 번제는 결국 임직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태내는 각오와 헌신을 의미한다(딤후 1:12).

(3)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물은 “위임식의 수양”이었다.

이것은 제사장의 순종을 보여준다. 귀와 손발에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12. 위임식의 7일 회막 문을 떠나지 말라(30-36절)

제사장은 인내와 고난의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딤후 2:3-4). 제사장은 자기 직무에 만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딤후 4:15-16). 제사장의 위임식이란 제사장의 한 평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이란 의미이다. 위임식의 모든 제사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을 영원히 완전케 할 영원한 십자가의 제사를 상징한다(히 10:14).

<신앙시인의 수필>



이경아 박사(신원예담교회)

그런 줄 몰랐더니

비 오는 줄 알았더니 낙엽이었다
마음대로 옮겨지는 낡은 재활용품처럼
관제로 부여지는 추억의 이름
향기롭게 피어나며 척척해지는

저 나무가 그럴 줄 몰랐다면 앞을 버린다
이 나무가 그럴 줄 몰랐다면 앞을 버린다
대체 나무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앞은 무얼 그리도 잘못했던 말인가
연근처럼 송송 뚫린 소리의 뼈가 보이고
구부러진 허리며 녹슨 팔다리
이제는 마를 대로 말라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고 부서지는 가루인 줄 알았더니
아,
불쏘시개,

산의 정수리에 불이 붙는다
심장으로 번지며 훨훨 타오른다
타고나면 재가 되어 쓸쓸할 줄 알았더니
이 나무가 버린 앞을 산이 받아 안는다
저 나무가 버린 앞을 산이 받아 안는다

나무가 버린 앞을 품을 때마다
상처의 뿌리 짓무르느라 말수가 줄고
패인 세월 부여져 고이다 풀어질 즈음
산은 더 깊어지는 거라면서

— 이상아, 『그런 줄 몰랐더니』, 『나무로 된 집』(서울: 리토피아, 2004), pp. 106-107.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대해 최소한 두 번은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우선은 듣는 그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그것은 공감, 동조, 분노, 냉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혼자 삼키거나 타인에게 옮깁니다. 이때 칭찬이 아닌 말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 즉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것.

우리는 연약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 지어져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은 늘 수리 중이요 공사 중입니다. 청년의 때일수록, 처음 하는 일에 임할 때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문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마리아 앞에 서서, 그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모인 자들을 가로막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품지 못할 지체는 없습니다. 지체를 품을 때마다 우리는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

<사도행전 강해>(7)



사도행전 1:1-6:7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2)

사도행전 1:1-6:7에 나타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누가복음의 주제와 연속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의 제 1단원(눅 1:1-4:13)의 예수의 잉태와 탄생기사(1-2장)은 ‘하나님의 나라’(th/j basilei,aj tou/ qeou)를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눅 1:31-33) 마친다(눅 2:49). 누가는 1-2장에서 ‘주’를 신론적 칭호(눅 1:16-17, 38, 46; 2:9)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칭호로도 사용하며(눅 1:43; 2:11, 26),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께서 탄생하는 것으로 성취됨을 주제로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주 기독교는 누가복음의 제 2단원(눅 4:14-9:50)의 예수의 갈릴리 사역에서 더 분명해진다. 이 단원은 예수의 갈릴리 사역을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하고(4:14-44),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주 기독교적 고백으로 이어

진다(눅 5:1-6:16). 누가는 베드로의 주 기독교적 고백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인자 기독교, 즉 예수의 신성으로 연결한다(눅 5:8, 12, 21, 24). 하나님 나라의 복음사역으로 모은 언약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6:17-49)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눅 6:20)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으로 마친다(6:46-49). 누가복음의 제 3단원(눅 9:51-19:27)이나 누가복음의 제 4단원(눅 19:28-24:53) 또한 하나님의 나라(눅 9:60, 62; 10:9, 11; 19:11; 23:51)와 주 기독교(9:54, 59, 61; 10:17, 39-41; 19:8; 24:34)의 관계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이상의 논의가 옳다면, 누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교는 사도행전의 첫 단원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약되고 그것은 사도행전의 주제로 연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행 1:1-2; 2:22-24).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선취를 베푸셨듯이, 승천 이후에는 사도적 교회를 통해 그 사역을 계속하신다. 구속사역은 탄생부터 재림까지 점진적으로 계시되지만, 주의 죽음과 부활, 승천 등 구속사의 결정적 사역이 성취되었기에 사도적 교회는 승천과 재림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선취를 경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완성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주 기독교는 복음의 이중표현으로서 균형잡힌 종말론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것은 재림 연기로 인하여 정치적 전복이나 타협을 시도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종말론적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데 힘을 다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누가의 저작 목적과 같이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서 있다.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 후 최고의 성장 고비에 놓여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고,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영광의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이심을 복음으로 확실히 선포해야 할 것이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공교회가 주 기독교적 복음의 본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갔듯이, 한국교회의 하나됨도 오직 복음의 본질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달을 때 교회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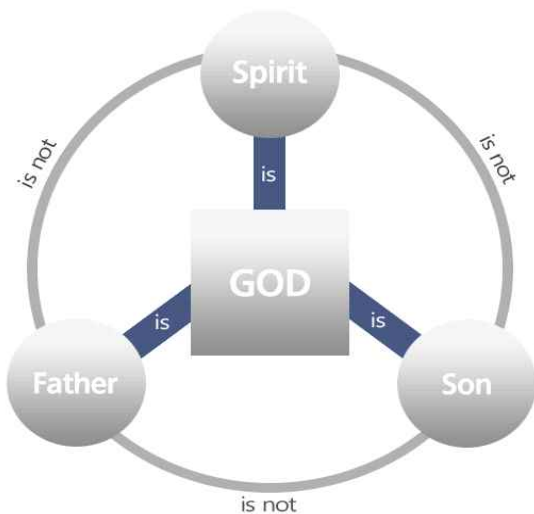
삼위일체론 강의(1)

이동영 교수(Dr. theol. 조직신학)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리로서의 삼위일체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론은 기독교론과 더불어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교리로 간주되어왔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교리들과 더불어 사할을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과 기독교론과 더불어 교파를 불문하고 모든 기독교가 고백하는 공교회의 신앙고백입니다. 이 교리를 고백하면 기독교이고, 이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론(Gotteslehre)이며, 그러기에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예배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무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요 4, 22)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관습과 습관으로 예배드리는 행위는 참다운 예배행위가 아님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참조. Dorothy L. Sayers, 『기독교 교리를 생각한다』, IVP, 41). 누군가가 “따분하고 복잡한 삼위일체교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포기하고, 그냥 단순하게 믿고 예배하자”고 말한다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자는 말 이외에 다른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하여 무지하고, 알고자하는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에 열심을 기울이자고 말하는 것은 참 모순적이면서도 심히 우려 할 수밖에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어떻게 참다운 예배가 가능하며, 올바른 예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리는 교리들 중에 교리이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교리와 더불어 유대교(Judaismus)와 이슬람(Islam)과 같은 전제군주적 일신종교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힌두교(Hinduismus)와 같은 다신종교와 불교와 같은 무신론종교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참조.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1979, 282). 만약 삼위일체교리가 없었더라면 초기 기독교는 자신들의 종교전통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과 실천력을 가진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교리는 또한 계몽주의 이래로 구라파의 지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철학적 이신론(Deism)이나 종교철학적 범신론(Pantheismus)으로부터 기독교의 정체성을 구분 짓는 교리이기도 합니다(H. Bavinck, 같은 책, 330)0.

그러므로 화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의 고백과 더불어 전체 기독교는 서고 넘어 진다 (...).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모든 교리의 뿌리이며, 새 언약의 실체이다. (...) 삼위일체 교리는 한편의 형이상학적 교리 또는 한편의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 자체의 심장이고 본질이다(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II, 3, 346).

바빙크의 상기의 진술은 기독교 교리들 안에서 삼위일체교리가 갖는 비중과 중요성을 갈파한 만고의 명언입니다. 삼위일체교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심장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일의 신학자 빌프리트 예스트(Wilfried Joest)는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에 관한 진술 속에서 번역된 복음”이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W. Joest, Dogmatik, I, S. 335). 우리가 만약 삼위일체교리에 무지하거나,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죽음은 한 의로운 선지자의 죽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 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교리를 하나님에 관한 진술 속에서 번역된 복음이라고 정의한 예스트의 견해는 삼위일체교리의 이면을 꿰뚫고 있는 대단히 예리한 통찰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삼위일체교리를 앞선다

삼위일체교리는 철학적-사변적-형이상학적 이론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대 교회 신자들의 실제적 구원의 경험, 즉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은 그리

스도 안에서의 구원사건에 대한 송영적 고백(고후 13, 13; 엡 1, 3) 및 예전적 축도형식(고전 12, 4ff; 엡 4, 4ff)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W. Joest, Dogmatik, I, 319).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명령에 세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마태 28, 18-20). 이렇게 삼위일체의 성호가 등장하는 문맥들을 우리가 신약성경 안에서 고찰해 볼 때, 삼위일체교리는 초대교회의 예배 속에 자신의 '신학적 자리'(Locus Theologicus)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드렸고, 예수님 자신이 주님으로 불려 졌으며, 성만찬의 성령임재의 기원 속에서 성령이 불려 졌습니다. 상기의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해서 삼위일체교리가 먼저 정립되고 난 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가 드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교리가 교부들과 공의회들을 통하여 정교한 형식으로 정립되기 이전부터 고대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경배되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를 모으고 정리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설을 붙인 것이 삼위일체교리이지, 삼위일체교리가 먼저 정립되고 난 후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¹⁾ 그래서 교부 아퀴타니아의 프로스퍼(Prosper von Aquitanien)는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갈파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법(예전)이 신앙의 법(신학)을 앞선다(legem credenda lex statuat supplican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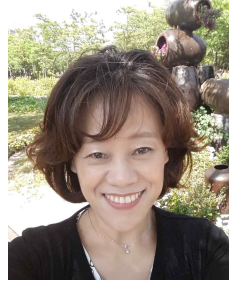
삼위일체교리가 예배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삼위일체교리는 단지 조직신학 강의 시간에 고답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변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립 멜랑히톤(Philipp Melanchthon)은 자신의 명저 『신학총론』(Loci Communes)의 서문에서 “나는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니! 신학의 주제들을 논구하는 책의 서문에서 사변하느니 차라리 경배하겠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숙고해 볼 것 같으면, 결국 신학은 사변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경배를 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사변하는 것 보다,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라야 비로소 이 교리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학습하고

1) 삼위일체교리가 정립되기 전부터 고대 교회는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성부의 독생자가 아니라 성부의 피조물임을 주장하며 종속론을 유포했던 이단자 아리우스(Arius)와 그의 추종자들의 등장은 이들 이단에 대하여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및 고대 교부들로 하여금 정교한 체계를 가진 삼위일체교리를 정립케 했던 것이다.

토론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

타대학의 애교심과 지원 2



김희은(동명교회 사모)

서울여대는 교육부 공인 '잘 가르치는 학교'로 선정,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육성사업'에 여대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고 대학 특성화 사업 5개 사업단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이라는 3관왕 명예를 받았지만 대학 도서관이 실력 배양의 토대이자 대학의 심장 부분과 맘 먹기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의 필요를 느끼고 동문들이 나섰다. 예전, 종합대학으로 전환 당시, 동문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식당을 열어 김밥을 팔아 기금 전액을 눈물과 기도로 마련했던 과거가 있기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며칠 전 알게 된 감격적 에피소드가 있다. 지금은 남편이 한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강사로 있던 한 동문이 20여년 전 젊은 시절에,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아기를 들쳐 업고서 가정 방문 교사를 하여 500만원을 만들어 기부하였다. 많은 시간이 흐른 이제야, 그 동문을 동창회 주관의 하 나기도모임에서 찾게 되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학교 사랑의 숨겨진 감격스러운 내용이었다. 지금도 그 동문은 자녀들 학교의 학부모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서울여대는 기도회원이 있고, 더 많은 기도 회원을 모집 중에 있다. 총장님께서서는 기도 회원에게 문자로 매달 학교의 기도 제목을 보내신다. 때로는 하나기도모임 카톡에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만남의 기쁨을 이른 아침, 전하기도 하신다. 이러한 공유가 있음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창회가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 주며 늘 함께 가고 있음이 힘이 되고 신뢰함이 쌓여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닌가 한다. 총장님을 곁에서 뵈고 학교의 진행과정을 듣노라면 참으로 고난과 고통 겪으심을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총장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동문들은 총장님을 위해, 학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 나라든지 학교든지 지도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서 선택, 지명하시고 지

도자로 세우심을 확신하고 있다. 직전에는 이광자 총장님으로부터, 지금은 전해정 총장님이 갖고 계신 성품과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총장님께서 주신 8월의 기도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1)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세워진 서울여대가 기독교 대학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서울여대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2) 학문의 전담이며 여성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여대에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3) 병석에 있는 서울여대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여름방학을 지나 구성원들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여 맑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문들은 매일 10시에 알람을 맞추어 놓고 기도하며 매일 대학로 캠퍼스에 모여서 하나기도모임을 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침마다 예배할 때 대학을 위해 기도한다 문자 오기도 하고, 대학생 어린 나이에 총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겠구나 느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회를 자비를 털면서 11년간 이끌고 나오는 후배도 있다.

이런 기도와 신뢰와 후원이 그 토대위에서 모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2015대학 구조 평가에서 서울여자대학교는 A등급을 받았다. 총298교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평가로 8월까지 5개월 진행된 것이다. A등급 받은 대학은 수도권 19개교, 그 중 여대는 서울여대 포함 2곳이다. 그동안 일선에서 연합하여 너무도 힘쓰셨고 뒤에서는 기도해 달라 라는 조급한 엄명에 함께한 동문들이 있었다. 발표나자 바로 총장님은 알려주시며 기쁨을 나눈 것도 이런 사례라 생각되어진다



‘모교가 아니면 나도 없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져 하나님의 일꾼 을 길러내는 귀한 곳.

한 줄기 샘물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세우는 곳, 사랑하면서도 늘 더 사랑하고 싶은 나의 친정 같은 곳이다’라고 한 선배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교 사랑의 마음과 학교가 필요로 할 때 달려가는 실천을 본다. 내게 서울여대 인이어서 주어진 복됨을 감사하며 밟고 있는 땅과 시간 속에서 내 작은 손짓이 서울여대에 길이 됨을 바라봄과 동시에 조직신학 교사반의 수업을 위해 기대감으로 달려오는 성경신학대학원. 교회와 교단, 교우들의 재정적 후원과 기부금이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성장양분이 되기를 고대한다. 2024의 기점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비상할 이 때, 세우신 총장님을 통해 계획된 선한 일들이 날개가 활짝 펼쳐져 순수하고 참된 신학대학의 설립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내일은 서울여대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중요 행사가 총총히 박혀 있다.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 제막식, 박물관 이전 및 뮤지엄 샵 개관식, 총장님과 리셉션, 음악회 등이 순서적으로 있다. 큰 행사에 모두가 비상상태인 만큼 참석해야 할 입장이다. 또한 반가운 해후도 기다린다. 하지만 스스로 따가운 눈총과 미안함을 뒤로하고 저녁에는 조직신학 교사 반 수업이 있기에 용감하게 성경대학원을 향해 지하철을 올라 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사야서 강해(1)>



“시온의 회복”(1장)

임용섭 교수(구약학, Ph.D.)

개요
이사야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이사야서의 흐름과 큰 주제를 제시한다. 즉 이스라엘의 배역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이후 있을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신 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이 단원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제(1:1)

심판의 선고(1:2~20)

- (1) 질책: 이스라엘의 죄(1:2~4)
- (2) 징계: 죄에 대한 징벌(1:5~9)
- (3) 변론: 징계의 이유(1:10~20)

회복의 약속(1:21~31)

표제(1:1)

여기의 표제는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이사야는 웃시야가 죽은 해에 소명을 받았고, 그 후로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사역했다(주전 740~701년). 웃시야는 영토를 회복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 번영을 이룬 왕이다. 하지만 그런 번영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와 경제에서 불의가 팽배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사야가 사역을 할 즈음에 북쪽에서 앗수르 제국의 위협이 시작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앗수르의 야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의 말씀을 전달했다.

심판의 선고 ~ (1) 질책: 이스라엘의 죄(1:2~4)

마치 법정에서 심판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심문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충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심판의 선고 ~ (2) 징계: 죄에 대한 징벌(1:5~9)

여기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묘사한다. 그들은 여기 저기 매 맞은 사람처럼 상하였고(5~6절),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으며(7절), 오로지 시온만 겨우 남았다(8~9절). 이 말씀은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은 두 번의 전쟁을 반영하고 있다. 즉 아하스 왕 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 온 것과(사 7장)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 제국이 쳐들어 온 것이다(36~37장).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였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두셨다.

심판의 선고 ~ (3) 변론: 징계의 이유(1:10~20)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하게 논증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자를 괴롭히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드리는 헛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10~15절).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요일 4:2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의 삶 즉 악을 버리고(16절), 선을 행하는 것이다(18절).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신다(19~20절). 이와 같이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언약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할 것을 요구하신다.

회복의 약속(1:21~31)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21~23절은 타락한 시온의 실상을 먼저 묘사한다. 시온은 더 이상 신실한 성읍이 아니라 창녀와 같이 타락한 도시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 가운데 억압과(21절), 거짓(22절)과 부정부패(23절)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24~27절은 이와 같이 타락한 시온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해 보복하시고(24절), 그 백성의 죄를 씻기시며(25절), 그들 가운데 공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심으로써(26~27절)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보편적인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28~31절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또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에서 완성된다(66:24)



<저자와의 만남>

‘왕의 음성’ 펴낸 홍성건 목사·김미진 간사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나요?”



지난 주말에 열린 NCMN 세미나 수료자 모임에 참석한 홍성건 목사(오른쪽)와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 설명한 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규장 제공

“나를 이끌어줄 음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불순종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인 ‘왕의 음성’을 듣는 삶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 음성은 특이한 시대, 특정인에게 국한된 특혜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으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이와 관련한 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개는 성경에 근거한다면이라도 어렵기만 하거나 반대로 간증에 치우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서로 합치고 내용을 보완한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NCMN(Nation Changer Movement & Network)의 대표이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오래 강의해온 홍성건 목사와 재정 강사로 유명한 김미진 NCMN 간사가 크리스천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책을 공동으로 펴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성경적 원리와 실제적 간증을 조화시킨 ‘왕의 음성’(규장)이다.

사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 천착해온 홍 목사의 책만으로도 영적인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다. 그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음성 듣기 강의는 성경에 기초하되 실제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 목사의 제자인 김 간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재정을 관리해온 체험사례를 더했으니 금상첨화나 다름없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성경을 기반으로 풀어가는 홍 목사의 글이 중심 기둥과 가지 역할을 한다. 그 가지마다 김 간사가 왕의 음성을 듣고 체험한 사례가 푸른 잎사귀나 열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 도무지 지루할 틈이 없다.

이 책은 NCMN 단체가 강조하는 세 가지 기둥, 즉 말씀 훈련(성경관통 100일 통독), 재정 훈련(왕의 재정) 그리고 음성 듣기 훈련(왕의 음성)이 중요한 축을 이룬다. 말씀을 읽고 알아야 음성 듣기가 풍성해진다. 재정 관리는 결국 말씀에 기반을 둔 음성 듣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을 개인이 읽고 공부해도 유익하지만, 교회 소그룹과 기독교인이 모인 직장에서 성경공부 하듯 한 장씩 읽고 토론해도 유익하다고 저자들은 권한다.

한국예수전도단 대표와 국제 YWAM 동아시아 대표, 제주열방대학 설립자 겸 책임자를 역임한 홍 목사는 서강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간사는 젊어서 기업가로 성공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광야를 체험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 결과 재정 강사로 부르심 받아 ‘왕의 재정’을 썼다.

지난 주말에 열린 NCMN 세미나 수료자 모임에서 김 간사는 “왕의 재정학교 훈련을 해오면서 훈련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 성경적 기반을, 제가 그 기반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썼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간사님이 자신의 삶 안에서 나오는 풍부한 간증이 이 책에 함께 들어간다면 독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삶에 적용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해답은 이 책의 프롤로그에 나온다. 바로 동방박사와 별, 그리고 꿈을 통해서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만날 관심도 없었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알지만 순종할 마음이 없는 무관심과 추측으로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음성에 대한 관심도 없을 거란 얘기다. 홍 목사는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당연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고집하지 말고 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이 책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길

바란다. 또 주님께서 완전히 행복한 나를 힘 있게 이끌어 가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초대받고 싶다면 이 책 한권으로 일단 한 걸음을 내디뎌보면 어떨까. 서문을 몇 줄 읽는 동안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겼는지 깨닫게 된다. 순종의 길이다. 흥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일 큰 목적은 ‘회복’이라고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주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론과 머리로 아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처럼 친밀감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국민일보)

그러나 직통계시를 받는 일 같은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다(편집실).

<선교신학>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을 중심으로2)

배춘섭 교수(선교학)

II. 영적 전쟁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제3의 물결

1. 영적 전쟁에 관한 다양한 견해

오늘날 영적 전쟁의 주제는 많은 학자들과 선교사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 중 베일리과 에디(J.K. Beilby & P.R. Eddy)는 「Understanding Spiritual Warfare: Four Views」라는 책에서 학자들마다의 영적 전쟁에 관한 견해를 잘 묘사했다.³⁾ 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에서 영적 전쟁의 이해를 설명한다.

첫째, 월터 윈크(Walter. Wink)의 견해이다. 윈크는 세상이 제도화된 장소이고, 사단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

의 상징적 보고(寶庫)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지배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악한 배후세력을 찾아 그 사회제도 안에 거주하는 악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교방법론은 악한 세력과 인간이 직접 대적하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역사로 구원이 나타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데이빗 폴리슨(David. Powlison)의 견해이다. 폴리슨의 영적 전쟁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사단을 단순히 사회문화나 심리학적 작용만을 일으키는 존재 정도로 축소시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사단을 실제적 존재로 인정하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종사해야 하며,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인간중심적인 열광주의적 선교방법론을 택하지는 않는다. 폴리슨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逐邪) 행위를 정경이 완성되기 전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된 임시적 은사라고 말한다.⁴⁾ 이유는 당시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확장에 대한 언약적 확증이었음과 동시에, 교회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한 구원의 과정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 사단의 역사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전통적인 선교방법론을 지향하는 것이다.

셋째, 그레고리 보이드(A. Gregory. Boyd)의 견해이다. 보이드는 지상적 차원의 구원모델 때문에 사단을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존재로서 개인적 대리자 정도로 인식한다. 또한 그는 성경을 통해 영적 전쟁의 이유를 천상의 우주적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쟁을 인간적인 폭력적 방법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과 평화적 수단으로 악한 세력들을 대항하고, 이를 위해 기도와 상담과 같은 실제적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⁵⁾ 뿐만 아니라 보이드는 영적 전쟁을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인 갈등 속에서 존재하는 실제라고 여긴다. 쉽게 말해, 그는 갈등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이드는 영적 전쟁을 단순히 귀신을 쫓는 사역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한 사역 즉, 기도를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악과 혼란

2) 이후 전략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의 용어는 지면의 한계와 표현의 편의상 SLSW로 기술하고자 한다.

3) James K. Beilby and Paul Rhodes Eddy. *Understanding Spiritual Warfare: Four View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2).

4) David. Powlison, *Power Encounter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5), 35.

5) Gregory. A. Boyd, *Satan & the Problem of Evil: Constructing a Trinitarian Warfare Theodicy*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2001), 209-241.

에 대항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마지막으로, 피터 와그너와 레베카 그린우드(Rebecca Greenwood)의 견해이다. 그린우드는 하나님 나라(왕국)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들에게 능력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지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재판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의 권위를 대표하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강조한다.⁷⁾ 와그너는 영적 전쟁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한다.⁸⁾ 첫째는 지상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Ground-level spiritual warfare)이다. 둘째는 주술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Occult-level spiritual warfare)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이다. 특히 와그너가 가장 관심을 지닌 영적 전쟁은 전략적 차원이었는데, 이는 사단과 귀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세력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수준 높은 전쟁을 가리킨다. 그는 전략적 차원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 귀신'을 인정하고 전략적 중보기도를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지역 귀신은 '영적 도해도', '동일시 회개', '땅 밟기기도' 등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패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관한 다양한 접근은 '어떤 선교방법론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선교전략과 목적이 달라진다.

<영화평론>

2006년에 본 영화 '왕의

6) Gregory. A. Boyd, *God at War: The Bible and Spiritual Conflict* (Downers Grove, Ill : InterVarsity Pr, 1997), 269-290.

7) Rebecca. Greenwood, *Destined to Rule: Spiritual Strategies for Advancing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Michigan: Chosen, 2007). 137-150.

8) C. Peter Wagner, *Confronting the Powers: How the New Testament Church Experienced the Power of Strategic-Level Spiritual Warfare, The Prayer Warrior Series* (Ventura, CA: Regal, 1996), 21-22.

남자'를 관람하고

권호덕 총장

이 영화는 연산군 시대의 한 광대 동료가 완벽한 실력을 발휘하며 생계를 이어 오다가 우연히 왕실에 연결되어 왕을 위한 광대가 되어 생존하게 된다. 그 중에 곱상하게 생긴 광대가 정신적으로 병든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호강했는데, 그를 시기한 왕의 연인인 장녹수가 그를 모함했고 이 위기를 동료 광대가 대신 짊어지고 인두로 장님이 되며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암시한다.

-1) 노예로서 왕: 왕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이지만 신하들에게 갇혀 자기의 이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음을 보여 주는 동시에 비록 천민이지만 광대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왕 스스로 자기는 신하들에게 갇혀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탄한다. 반면에 광대들은 가면을 쓰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매우 과감하게 비판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량을 자유롭게 마음껏 발휘했다.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이 과연 자유인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야기(惹起)한다. 지금 한국 청소년들은 과외의 노예, 경쟁의 노예, 부모들의 욕심의 노예 등의 삶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로부터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2) 정치 풍자가로서 광대: 이 광대들은 심지어 왕궁에서 신하들의 비리를 토막극으로 보여주어 유교적인 배경으로 가진 신하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동시에 왕으로 하여금 이들을 벌주게 함을 통해 왕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자유인 광대: 이 광대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휘했다는 점에서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었다.

-4) 주인공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아내 역을 맡은 남자는 얼굴이 매우 예뻐서 지방에서는 탐욕스러운 관리나 부자들의 동성애적 성적인 노리개가 되었고 마침내는 왕의 성적인 상대가 되었다. 남편 역을 맡은 광대는 그것이 상항 못마땅했으나 그 당시 사회적인 구조(構造)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 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지저분한 동성애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이들은 인간애적인 차원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성애(同性愛)를 묵인하도록 만들거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이 영화의 절정은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준다. 여

자 역을 맡는 광대는 왕의 총애를 받아 심지어 종 3품 자리까지 얻는다. 마지막 왕 앞에서 광대놀이를 하면서 이들은 다시 살아나도 왕궁보다는 광대를 택하겠다고 말할을 통해 광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서 인생의 최고의 낙을 누릴 것 같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왕보다 행복했다.

사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것은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때이다. 문제는 사농공사 계급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이 영화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 광대들은 불행을 환경 속에서 부분적인 행복만을 맛볼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대 젊은 세대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인간이란 재물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자유인으로서 자기 존재의의를 실현해야 행복한 것이다.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자기가 지금 택한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긍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분야주권 사상과 통한다. 모든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재능을 잘 발휘하여 이웃에게 도움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이 실현되려면 계급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계급주의 풍조가 깔려 있다. 재물이 많이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종자가 다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사회적인 권력이나 명예가 많아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자들이 이웃을 위한 봉사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결코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는 인권의 존엄성과 진정한 평등사상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갑오경장을 거치고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시대를 체험하면서도 이조시대의 유교적 계급주

의 풍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입시지옥은 이런 계급주의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계급주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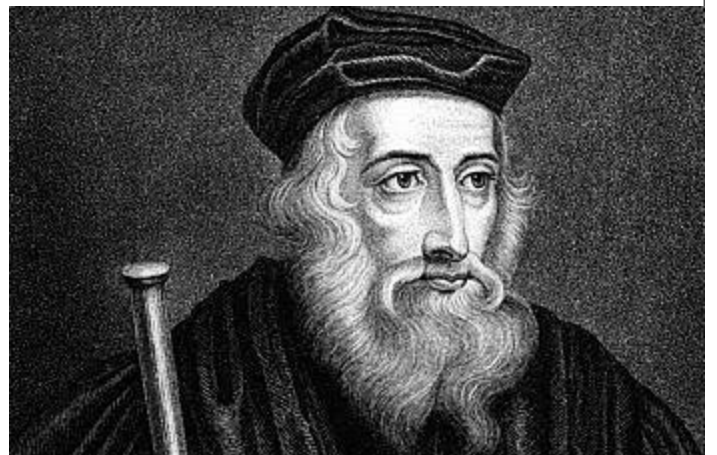
젊은 세대들은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가? 유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우리의 의식구조(意識構造) 속에 깔려 있는 계급주의 성향부터 반성해야 될 것이다. 동시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연마하고 발휘하되 이 광대들처럼 진정한 자유정신과 더불어 발휘하여 이웃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연대(連帶)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급료도 사실상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독일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구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세계로 넘어올 때 그 당시 독일 대통령이던 바이제커(Richard von Weizaecker)는 '자유는 곧 책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면에서도 매우 적절하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유하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단지 이 대답은 50% 밖에 맞지 않는다. 자유는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악습을 위해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방종이지 결코 자유가 아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죄의 종이라고 단정한다.

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자유인이 많을 때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종교개혁 120년전 개혁운동



보헤미아의 얀 후스(Jan Hus)가 프라하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던 해인 1393년, 교황 보니파시오 9세는 '자비의 여름'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시판한다. 최소 15번 교회를 나가 매번 헌금하고, 15번째 '죄 사함' 기도 땀 1~14차 헌금 총액만큼의 돈을 한꺼번에 내면 그 때까지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상품'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항을 내 걸고 있다.



마르틴 부쨌(Martin Bucer)는 독일인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개혁운동을 하면 칼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고 영국에서 일하다가 죽음



루터와 로마카톨릭신학자 테첼(Teziel)과의 논쟁



칼빈은 프랑스인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함



루터의 동시대에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올리히 쯔빙글리(Ulrich Zwingli)가 개혁운동을 시작했다.



파렐이 개혁운동을 안하려는 칼빈에게 천둥같은 책망을 한다. 칼빈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제네바에서 추방당하는 칼빈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Beza) 그는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 학장을 하면서 개혁신학을 유럽에 보급하는 일에 힘을 썼다.



왼쪽부터 파렐(Farel), 베자(Beza), 비레(Viret), 칼빈



종교개혁시대 좌파 토마스 문쩌(Thomas Muenzer).
농민반란 주동자



기독교강요를 저술하는 칼빈



스콧트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끈
존 낙스
(John Konx)

2016 신·편입생 모집(특별전형)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과 “철저한 성경언어교육에 기초한 주석-설교 훈련”을 바탕으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른 신학교육의 산실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모집(신입, 편입) - “사회복지학 신설”

과 정	인 원	일서접수 및 전형방법
박사(Ph. D.)과정 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0명	1.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 2일(월)~12월 8일(화) 2. 전형일시 12월 10일(목) 오전 10시 3. 전형방법 ① Th. M./ M. Div./ M. A.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Ph. D. - 서류전형(1차) - 영어 및 전공시험(2차) - 면접(3차)
신학석사(Th. M.)과정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00명	
목회학석사(M. Div.)과정 연구(M. Div. eq.)과정	00명	
석사(M. A.)과정 성경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00명	
평생교육원 기독교 상담반 조직신학 교사반 목회자 주석-설교반	00명	

2. 특전: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특별전형에 한함)

3. 특징:

- ① 성경언어 강화를 통한 성경 주석 특성화 ② 직장인을 위한 수업 운영
- ③ 지방학생 기숙사 제공 ④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7분 거리
- ⑤ 다양한 장학 제도(성적, 복지, 단독목회, 원우가족, 근로, 특별 등)
- ⑥ 타 교단 학생으로 본 교단에서 목회를 원할 시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회할 수 있도록 함

4.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